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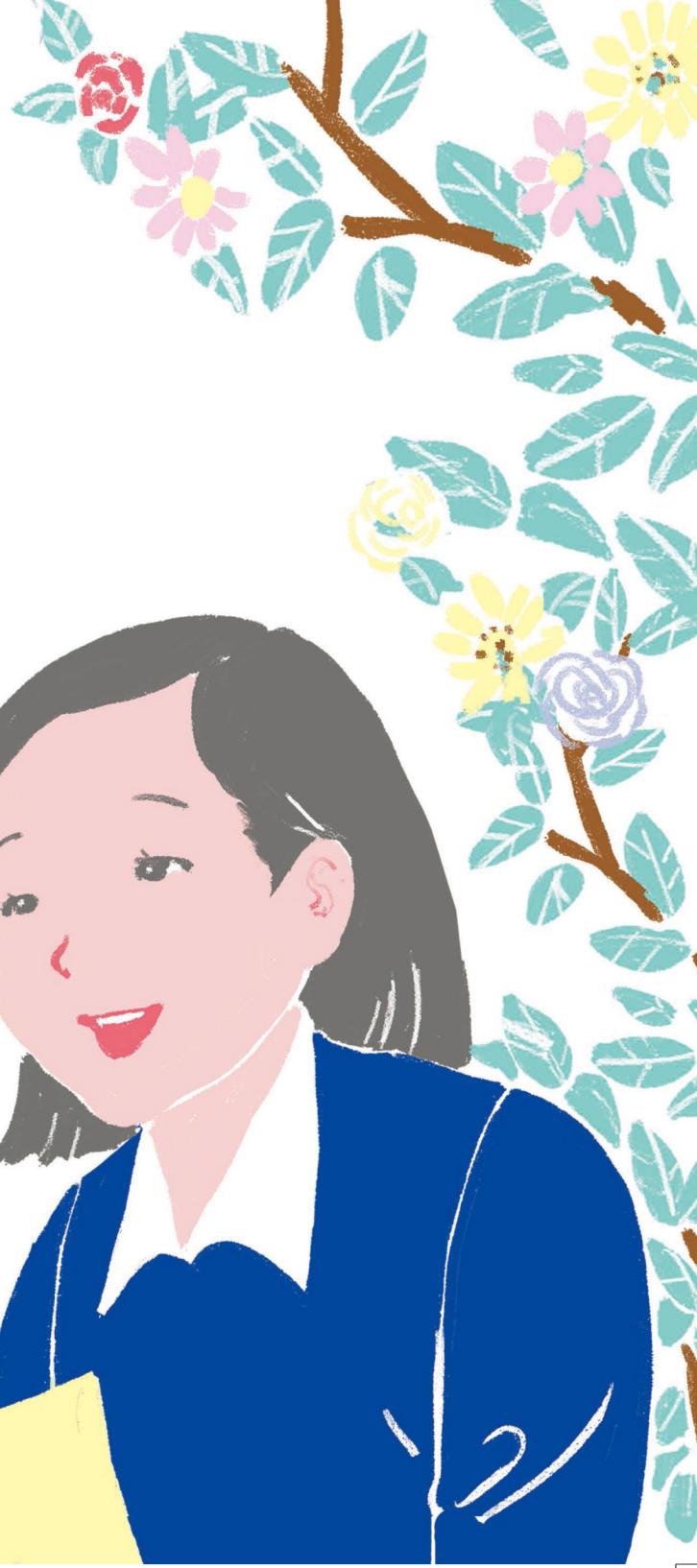
효정지도 孝情之道 시리즈 ①  
참어머님 생애동화 3

# 순수하면서도 강인한 모범생 참어머님

김순민 글 · 인미 그림



효정문화원  
孝情文和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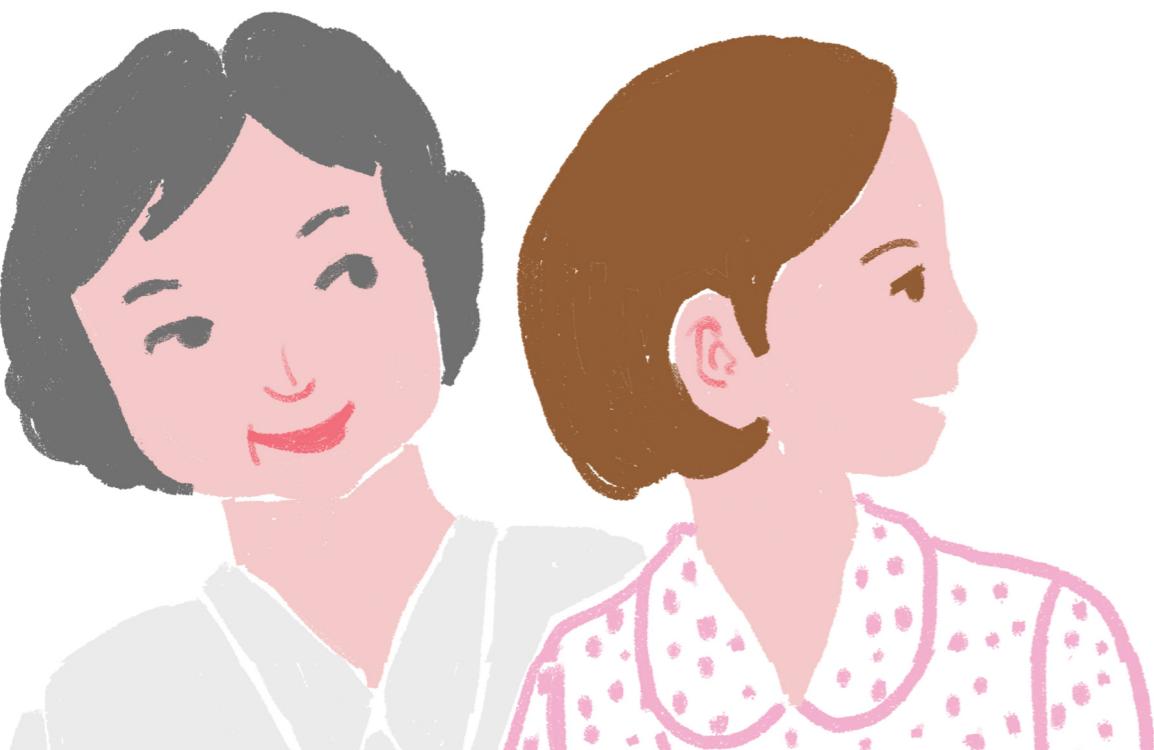
효정지도 孝情之道 시리즈 ①  
참어머님 생애동화 3

# 순수하면서도 강인한 모범생 참어머님

김순민 글 · 인미 그림



효정문화원  
孝情文和苑



계속된 전쟁으로 참어머님은 대구에서 피란살이를 시작했어요.

어느덧 학교 갈 나이가 되어 대구 초등학교에 다녔어요.

“김 선생님 반에 새로 온 여학생이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면서요?”

“한학자 학생이요? 공부뿐이 아니에요.

수업 태도도 바르고, 친구들도 잘 도와주는 모범생이에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고, 거기다 공부까지 잘하니

친구들이 많이 따르겠네요.”

“단연 인기가 최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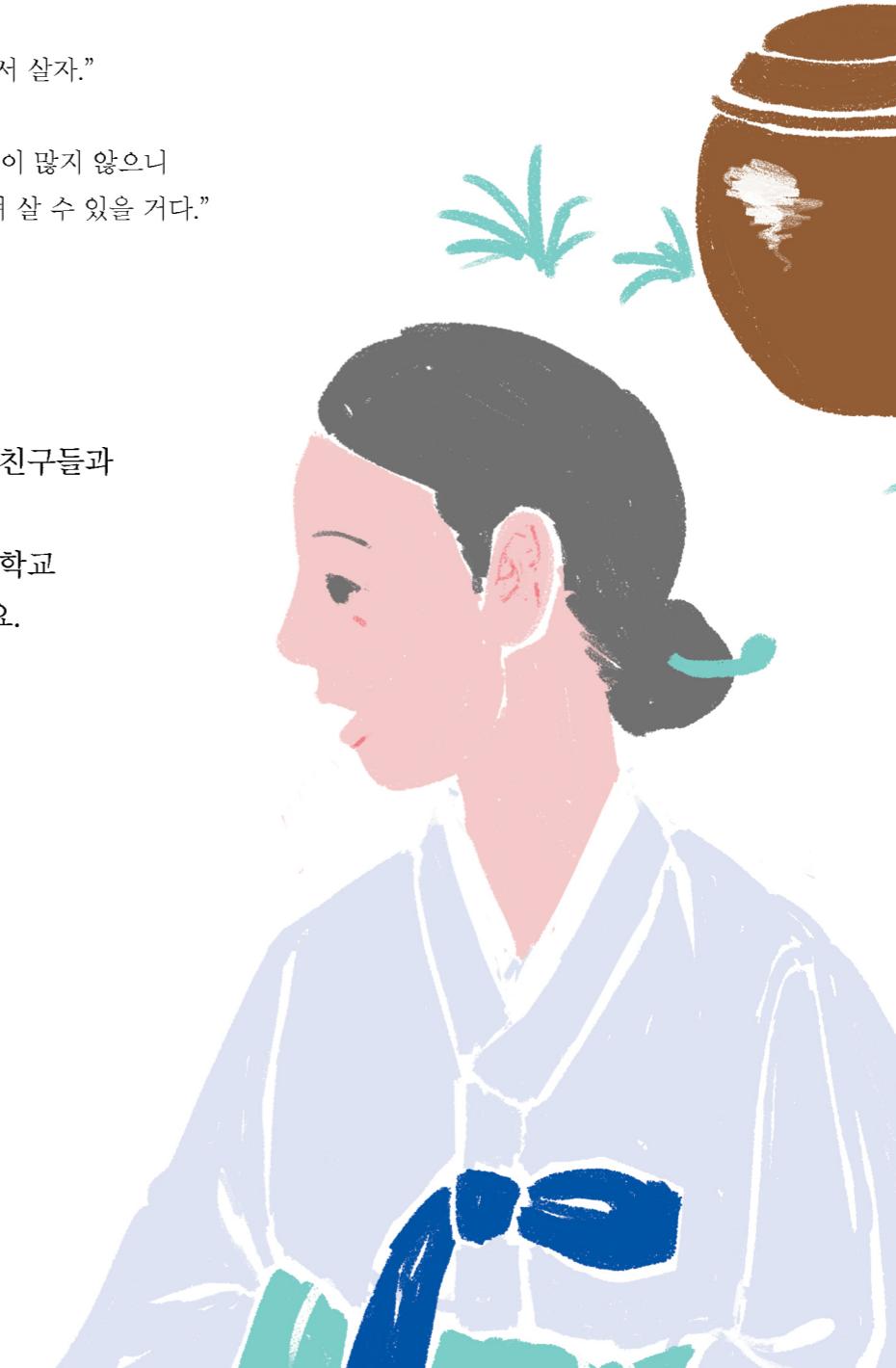


‘하나님의 딸, 하늘의 신부로 순수하게 잘 자라야 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많구나!’

참어머님이 점점 더 예뻐지고 공부도 잘해서  
주위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자 어머니는 걱정이 깊어지셨어요.

“우리 제주도로 내려가서 살자.”  
“제주도요?”  
“그래,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  
네가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 수 있을 거다.”  
“예, 어머니.”

참어머님은 정든 학교와 친구들과  
헤어지는 게 서운했지만,  
어머니 말씀에 따라 초등학교  
5학년 때 대구를 떠났어요.



참어머님은 제주도로 내려가 신효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되었어요.  
전학해서도 여전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행동이 바른 모범생으로 지냈지요.

“학자야, 우리 철수네 집에 모여서 같이 놀기로 했는데 너도 가자!”  
“괜찮아, 난 집에 가야 해. 재미있게 놀아.”

참어머님은 학교를 마치면 친구들과 어울려 놀지 않고 곧장 집으로 왔어요.  
어머니와 함께 제주도까지 내려온 이유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할머니! 언제 오셨어요?”

참어머님이 집에 오니 외할머니가 와 계셨어요.

“너희가 어찌 지내나 궁금해서 왔지.”

외할머니는 참어머님과 시간을 보내며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학자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란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와 함께하신다.”  
“네, 할머니. 할머니, 어머니께서 항상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런지,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늘 포근하고 따뜻하게 느껴져요.”

참어머님은 늘 포근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딸로 바르게 자랄 것을 다짐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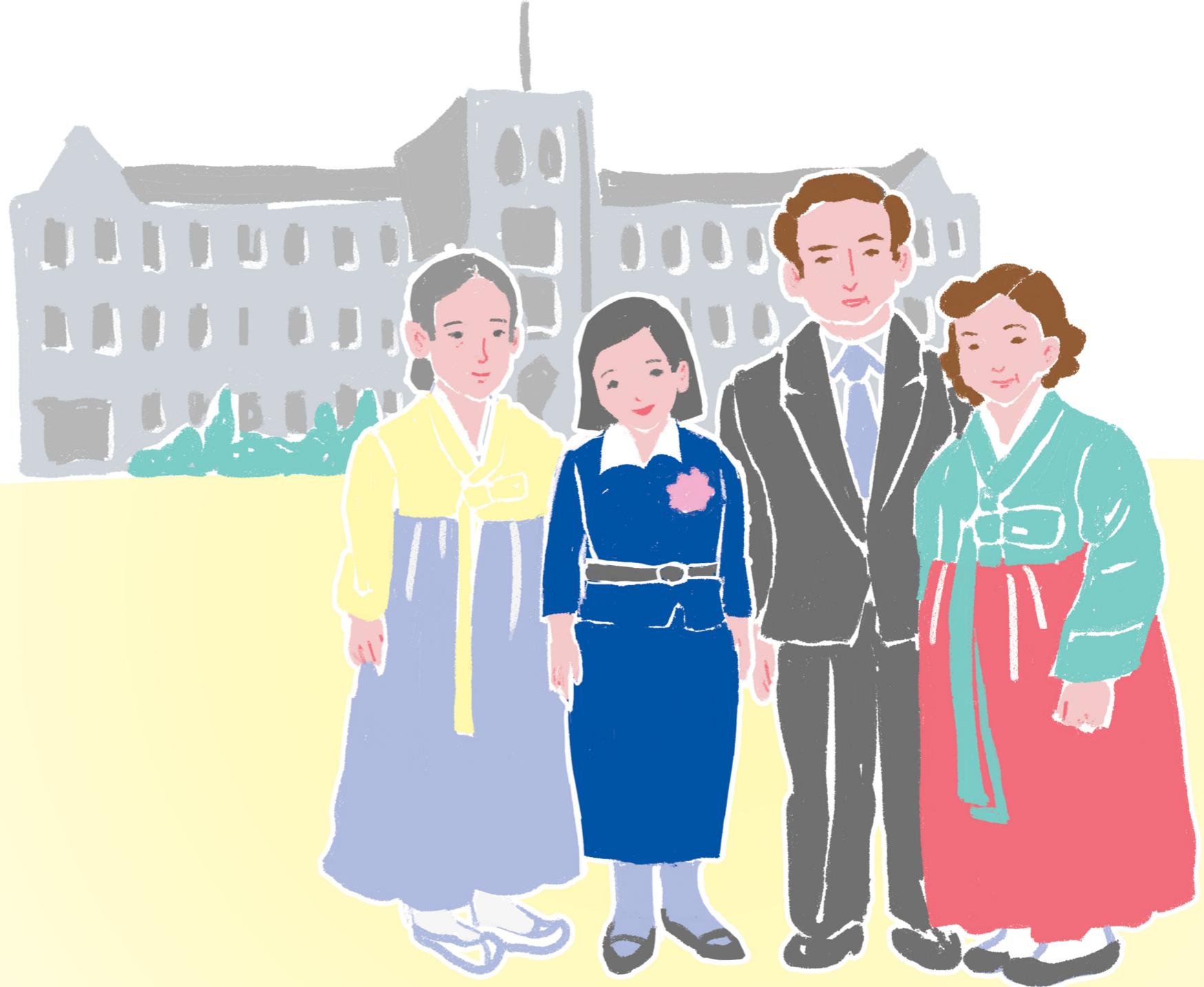




참어머님은 6학년이 되었을 때  
외삼촌이 계시는 춘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참어머님은 전쟁을 겪어 내며 서울, 대구, 제주도, 춘천  
네 곳의 초등학교를 옮겨 다녔어요.

“위 학생은 행동이 바르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며,  
특히 성적이 우수하여 이 상장을 줍니다.”  
“짝짝짝짝!”  
“학자야, 졸업을 축하한다.”  
“우등상까지 받고 정말 대견하구나.”

어머니, 할머니, 외삼촌 모두  
참어머님의 초등학교 졸업을 기뻐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순수하면서도 강한 신앙심으로  
춘천 봉의초등학교를 우등생으로 졸업하게 된 거예요.



참어머님은 서울에 있는 성정 여자 중학교에 입학했어요.

“학자야, 이번에도 또 1등 했다면서?”

“이번이 몇 번째 우등상이야?”

“너는 공부 잘해서 정말 좋겠다.”

중학생이 된 참어머님은 늘 학급 최고 성적으로  
매번 우등상을 받곤 했어요.



“학자야, 이 그림 네가 그린 거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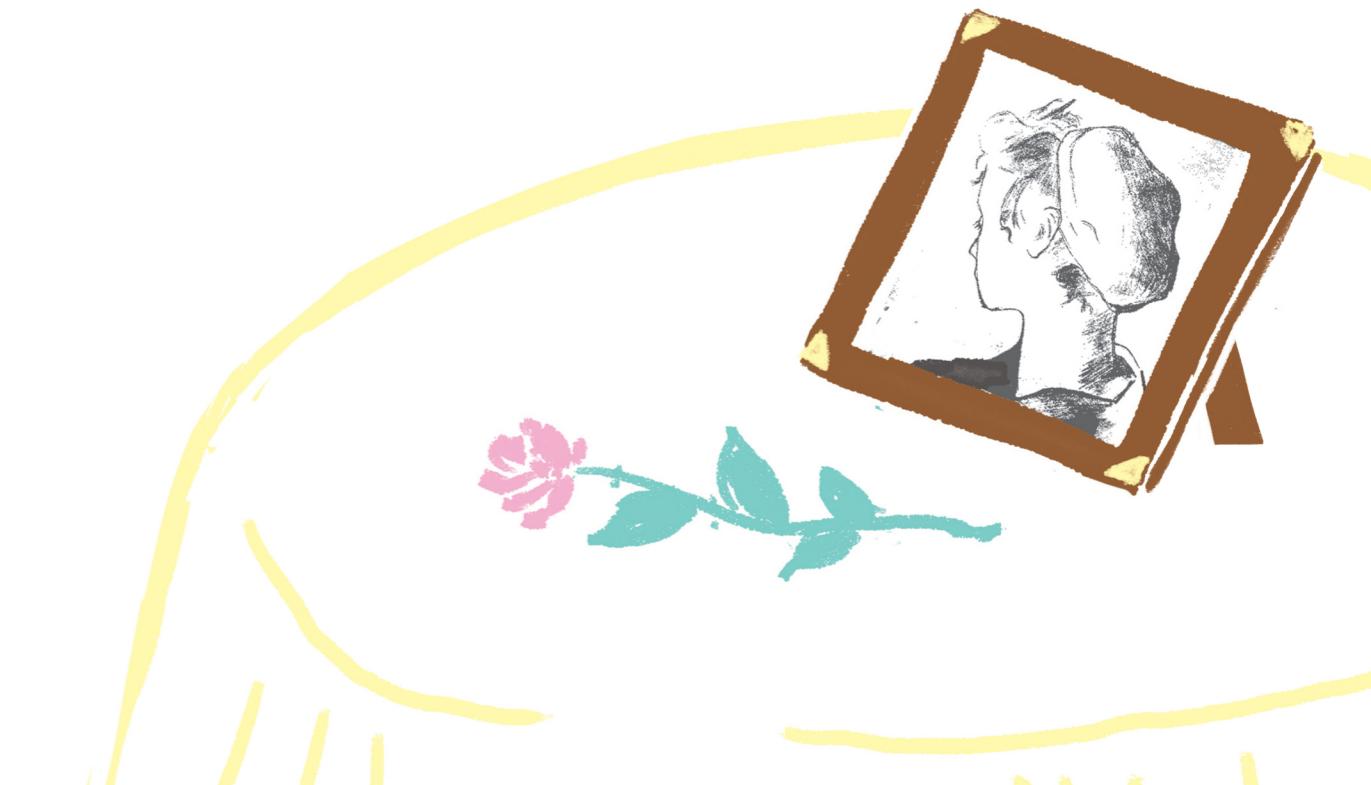
“네, 선생님.”

“그림을 꽤 잘 그리는구나. 소질이 있어.”

“그림 그리는 게 재미있어요.”

참어머님은 공부하는 틈틈이 그림도 곧잘 그렸어요.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학교 미술 선생님께 칭찬도 받았지요.





“선생님, 한학자를 학생 대표로 추천합니다!”

“추천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볼까?”

“학자는 예의가 바르고, 친절하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맞습니다. 침착하면서도 명랑하고, 공부도 잘합니다.”

참어머님은 3학년이 되어서 전교 학생 대표가 되었어요.

학교를 위해, 친구들을 위해 늘 봉사했지요.

“이번 학생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참어머님은 전교생이 모인 가운데 단상 위로 올라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당당히 발표를 하곤 했어요.





중학교 졸업이 가까워진 어느 날이었어요.  
함께 살고 있던 외삼촌이 물어보셨어요.

“학자야, 고등학교는 어디로 가고 싶으냐?”  
“간호학교로 가고 싶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니?”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고통받는 사람들  
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가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고 돌봐 주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네 마음이 참 기특하구나.”



중학교를 졸업한 뒤 참어머님은 성요셉 간호학교에 입학해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나이팅게일처럼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려는

따뜻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했지요.

예의바르고, 친절하면서도 한 번 결심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참어머님은 역시 고등학교에서도

선생님들과 주위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학자야, 이번엔 또 무슨 책이야?”

“응, 성자성녀전이야.”

“넌 정말 책도 많이 읽는구나.”

참어머님은 학교 공부를 마치면, 책 읽는 것을 즐겼어요.

음악을 들으며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도 많이 했지요.



“학자야, 우리 시험도 끝났는데, 놀러 가자!”

“그래, 남자애들이 너랑 같이 오래.”

“아니야. 난 안 가.”

“너는 어찌된 애가 한 번도 남자애들이랑 어울리지를 않니?”

참어머님은 혼자 생각하셨어요.

‘난 하나님의 딸이고, 하늘의 신부가 될 사람이야.’

순수하고 아름다운 참어머님을 좋아하는 남학생들도 있었지만,

참어머님은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대신 어디를 갈 때에도

‘하나님, 제가 어떤 일로 어디에 갑니다. 저와 함께해 주세요.’

맛있는 것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 먼저 드세요. 저는 나중에 먹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했어요.

참어머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하나님의 딸로, 하늘의 신부로 점점 성장해 갔답니다.



효정지도 孝情之道 시리즈 ① 참어머님 생애동화 3

# 순수하면서도 강인한 모범생 참어머님

초판 1쇄 발행일 · 2021년 2월 1일

글 · 김순민 | 그림 · 인미  
펴낸이 · 윤영호 | 펴낸 곳 · 효정문화원

편찬위원 · 정원주 윤영호  
교정 및 교열 · 이길연 | 진행 · 홍성민 | 제작 · (주)HJ스마트에듀 더공감  
감수 · 김황제 이길연 도현섭 최정은 서다희

출판사 · 모심(HJ스마트에듀) | 등록번호 · 제2020-000351호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7안길 6 우정빌딩 3층 (서교동)  
전화번호 · 02-326-1240

ISBN · 979-11-973265-3-0

이 책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값 13,000원

KC  
KC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합니다.



ISBN 979-11-973265-3-0  
ISBN 979-11-973265-9-2 (전 7권)

